충남발전연구원 임시 이사회 가져

- 8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사 22명 참석 -
- 이사장 선임 및 청사이전을 위한 기금 사용안건 의결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8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연구원 이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는 그동안 공석이던 이사장 선임과 청사이전을 위한 기금사용에 대한 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이완구 도지사를 이사장에 선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원 청사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청사로 사용할 대전광역시 용두동 소재 동아일보 빌딩 전물 임차비 11억원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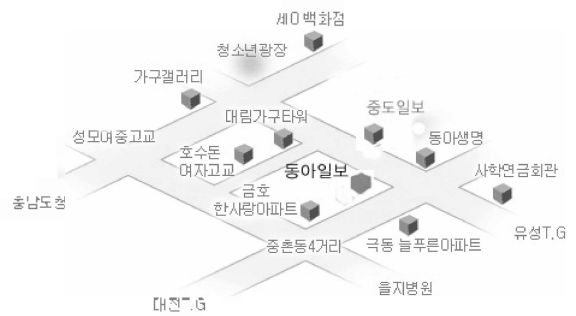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완구 도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정책싱싱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충남발전연구원은 9월 26 ~ 29일 까지 4일동안 연구원 청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동서네거리 동아일보 빌딩 5-6층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원 청사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충남 공주 소재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내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로 이전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안내



주소 :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 빌딩(5-6층) 충남발전연구원

교통편

- 지하철 : 오룡역
- 좌석버스 : 102, 104번
- 일반버스 : 110, 140, 170, 180, 212, 860번

충남도,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가져

– 9월 20일 태안에서 전국 경제담당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9월 20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경제 담당공무원과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1회 지역경제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자리로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KDI 현정택 원장의 기조강연과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박상철 교수의 특강을 비롯하여 시도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 등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발표와 각 시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역경제혁신 사례발표로 구성되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혁신사례로 발표된 13개 지역사례 중 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사례인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Win-Win을 위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에는 국무총리 상이, 우수사례인 대구·강원·경남·대전 사례에는 행자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이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최민호 행정부지사가 대신한 축사를 통하여 "이번 행사가 공무원들의 경제 마인드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새롭게 바꾸는 혁신의 장이 되길 바라며, 경험과 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전략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향토자원 개발 육성 등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 도정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